

‘도서관에서 작가/과학자를 만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유태형*

우리 협회는 2004년 9월에서 10월까지 약 2달 동안 한국과학문화재단, 21세기한국생명과학발전연구회와 여러 출판사들의 후원과 협조로 문화소외지역(인구 15만명 미만)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작가/과학자를 만나다” 강연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 협회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 도서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작가/과학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진흥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본지 11월호 특집에서는 총 26개 공공도서관과 1개 대학도서관 그리고 18명의 작가와 14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도서관에서 작가/과학자를 만나다” 행사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협회 사무국 담당자, 행사에 참여한 작가와 과학자, 도서관측 담당자, 출판사측 담당자의 글을 준비했다. 행사현장의 분위기와 사업추진 경과, 성과 등을 함께 나누어보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오늘날의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 및 독서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각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과 국민의 과학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과학문화지원사업의 기본방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도서관에서 과학자를 만나다” 강연회는 올해 초 몇 명의 과학자와 우리 협회간의 작은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과학문화재단과 21세기한국생명과학발전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문화적 혜택이 적은 문화소외지역의 도서관에서 과학도서를 출간한 과학자의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도서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강연회의 지원기준을 지역인구 15만명으로 하여 그 이하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강연회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그 이상 지역에서 신청하는 곳은 도서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과학자를 지원키로 하였다. 강사진은 과학도서를 출간한 과학자 10여분을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 한국도서관협회 관리지원팀장, yoollee98@dreamwiz.com

이와 함께 진행된 “도서관에서 작가를 만나다” 강연회는 사계절출판사, 창비, 보림출판사, 파랑새출판사, 푸른숲출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출판계의 잠재적 독자개발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처음에 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강연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안 혹시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신청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적절한 수준(작가강연회 약 20회, 과학자강연회 약 15회)에서 마감된 신청서에, 이젠 어떻게 행사를 치러내나 하는 걱정, 행사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가보지 못하는 탓에 강연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등을 걱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강연회쯤은 간단히 치러낼 수 있는 도서관들과 강연을 해 주실 수 있는 많은 강사분들이 계셨는데 괜한 걱정만 했다는 생각이다.

지난 10월의 마지막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평군립도서관에서 하는 팽영직 선생님의 강연회를 다녀왔다. 일요일 오후,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설레임을 안고 간 그 곳에서 맞이한 것은 예쁘장하게 설치된 강연회를 알리는 작은 간판 두 개, 그리고 강연회 준비를 위해 애쓴 기색이 역력한 도서관 사서들(작가강연회와 과학자강연회 2가지 모두 치러내신 욕심 많으신 분들)과 진지하게 듣고 있는 초·중등학생들 등 일요일 오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두시간의 뜻 깊은 시간이었고, 왜 다른 강연회는 못 가봤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순간이기도 했다.

“도서관에서 작가/과학자를 만나다” 강연회는 대도시에도 집중되어 있는 문화 행사들을 지방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문화 활동의 하나이다. 지역문화의 중심에 있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사업을 맡게 된 것에 마냥 행복해 하며 1년 간을 지내왔다. 이 강연회로 인하여 얻게 될 많은 사람들의 문화 충족과 미래에의 희망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인해 또한 기쁘다.

도서관이나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우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의 하나인 이번 강연회가 업무를 맡은 담당자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게으름으로 인해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에 못내 이쉽다. 이 사업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고, 잘 치러내야 할 행사이며, 많은 분들의 도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한국과학문화재단, 21세기한국생명과학발전연구회, 사계절출판사, 창비, 보림출판사, 파랑새출판사, 푸른숲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연회를 잘 치러내 주신 도서관 관계자와 모든 강사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